



29일 오후 3시 도청 3층 공연장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퇴직자와 공로연수자 및 가족, 동료 공무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 청원이 함께하는 2017년 상반기 퇴(이)임식'을 열어 도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 해왔던 공무원들의 퇴직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 상반기 퇴임식 성료

퇴직공무원, 700여명 박수갈채 속 명예로운 마무리
직위·직급 나타내는 훈장 포장 대신 공로패 전달

전북도 상반기 퇴임식이 29일 오후 3시 도청 3층 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퇴직자와 공로연수자 및 가족, 동료 공무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 청원이 함께했다.

전북도는 퇴직공무원들 간의 이질감을 없애기 위하여 직위 직급에 상관 없이 퇴(이)임자 모두에게 훈장 포장 대신에 동일한 공로패를 수여하고, 좌석배치와 수여 순서 등을 성명 순으로 좌석을 배치했다.

행사에서 퇴(이)임자들은 그동안 뒷바라지 해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

을 전하는 한편, 동료 및 후배들과 한자리에 모여 지난 날을 회상하며 이별의 아쉬움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하 인사말을 통해 "많은 가족과 동료 선배들이 모인 가운데 명예로운 마무리를 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진정한 인생의 황금기인 퇴임 후의 인생을 보람차게 보내시기"를 당부하면서, "비록 몸은 떠나더라도 전북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퇴직 공무원을 대표하여 김상호씨는 "지금까지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전라북도를 응원하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많은 동료 공무원들은 "평생 우리 도를 위해 일해오신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퇴(이)임식이 있어, 전북도청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자매의 나라여, 승전보를 울려라”

도 정무기획과, 세계태권도대회 방문 호주·뉴질랜드 응원

전북도청 정무기획과 직원 일동은 29일 세계태권도대회 열기로 뜨거운 무주 태권도원을 찾아 경기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날 경기장을 찾은 정무기획과 직원들은 자매결연을 맺은 호주와 뉴질랜드 선수들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내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경기 후에는 선수단 및 국가 임원들에게 전북의 특산품인 한지 부채를 증정하고 음료를 건네는 등 '전북 알

리미' 역할도 했다.

뉴질랜드 선수단과 응원을 함께 한 정무기획과 직원은 "뉴질랜드 선수들이 함께 응원을 해주는 것에 고마워 해서 뿌듯했고, 박진감 넘치는 태권도 경기를 직접 눈 앞에서 볼 수 있어 즐겁기도 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지난 24일 개막된 무주 세계태권도 대회는 170개국 1,9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로, 태권도 중 주국으로서 국가의 위상과 태권도

성시 무주를 알리는 기회의 발판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태권도 대회에 참가한 각 국가와 실과 자매결연을 통해 타국에서 대회를 치르고 있는 선수들에게 응원을 하여 선수들이 제 기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따뜻한 전북을 알리는 외교 역할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시, 외국인 관광시장 확장 총력

트래블마트·세계태권도대회 등 방문... 상품·프로그램 홍보

전주시가 외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한 여행상품개발과 홍보를 위해 국제관광전, 트래블마트, 세계태권도대회 등에 잇따라 참가하는 찾아가는 릴레이 관광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전주시는 29일부터 30일까지 근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여행상품회 전북 트래블 마트에 참가해 전주시 관광상품에 대해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2017년 전북 방문의 해를 맞이해 한국관광공사와 전라북도, 도내 14개 시·군, 태권도진흥재단, 관광관련 업체가 공동 프로모션을 통해 관광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여행업계, MICE업계, 온라인 및 홍보관계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전주시는 인바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전주-군산-부안-고창을 연결한 시간여행과 철도와 연계한 특수목적관광인 SIT(특수목적관광) 여행상품, 전주문화재여행상품, 전주가땀축제와 전주비빔밥축제 연계 여행상품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시는 철도여행 전문여행사인 해발여행사와 전주를 목적지로 하는 철도여행상품을 오는 하반기에 출시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상품을 개발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전주한옥마을과 덕진공원을 연계한 야간 여행상품개발을 위해 인바운드여행사 대표 및 상품개발 책임자를 대상으로 초청 팸투어를 진행하기로 하고 전주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한복과 한지, 스카, 공연, 레일바이크 등 체험형 웰니스 관광프로그램을 소개할 계획이다.

시는 또 28일부터 30일까지 세계태권도대회가 열리는 무주 태권도원을 찾아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태극선과 초코파이 등을 나눠주며 전주관광을 홍보하고, 투어를 예약 받는 등 맞춤형 관광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전주홍보관을 운영하고 외국인 여행업체 관계자를 초청해 전주한옥마을과 덕진공원 공연을 연계한 전주 팸투어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벌여 대회 조직위로부터 최우수 마케팅상을 수상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얼마 전 끝난 U-20 월드컵대회와 함께 세계태권도대회가 개최되면서 전주와 전북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오는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가장 한국적이고 전주다운 고품격 관광상품개발과 운영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용 기자

축산분과위원회 개최 전북 발전 방안 모색

전북도는 그동안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목표로 14개 시·군에 구성된 축산발전협의회와 함께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건설을 위해 29일 3차 축산분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분과위원회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축산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정책(사업) 발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자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전북 축산업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통한 면역력 강화 방안 및 국내(전북)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전북 축산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도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포럼을 결정했다.

또한 본격적인 하절기 폭염과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다짐하고 각 축종별 협회를 통해 하절기 사양관리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도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승술 삼라농정 축산분과위원장은 "전북도가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형 잡-웰페어 프로젝트 '시동'

직원 1인당 12만원 부담시 연 100만원 서비스 지원

전북도와 (사)전주벤처기업육성추진지구발전협의회(회장 양균의, 이하 JVADA)가 전라북도 소재 기업들이 탁월한 근무환경과 복리후생을 통해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 만들기', '전북형 잡-웰페어(Job-Welfare) 프로젝트'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88%를 차지,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급여는 대기업의 52% 수준이고, 연간 18만원 미만의 복지환경에 놓여있다.

JVADA는 국가공모사업인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지역고용혁신프로젝트 사업에 전북도와 함께 응모, 지역 기업의 복리후생 및 근무환경을 개선해 재직자의 고용유지를 도모하고, 청년층의 좋은 일자리 확대

를 위한 '전북형 잡-웰페어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약 40여개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북형 잡-웰페어(Job-Welfare) 프로젝트'는 기업이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2가지 요소(합리적 급여보상, 탁월한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중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생활·교통·문화·주거·자기개발·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원 1인당 12만원 정도의 복리후생 비용을 부담하면,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 직원 1인당 연간 100만원 이상의 건강관리, 레저문화, 생활편의, 자기개발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잡-웰페어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www.jvada.or.kr 공지사항을 참조해 7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